

제목: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할 일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8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교회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화목해야 합니까?

- 1) 게으른 자들을 _____ 하라고 하십니다.
- 2) 마음이 악한 자들을 _____ 하고 _____ 라고 하십니다,
- 3) 모든 사람에게 _____ 라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 양 다 갈 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8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Thessalonians 5: 12-18 신약 332 페이지 Presider

말 씬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할 일은"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Characteristics of a Healthy Church Rev. Kim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헌금/기도 다 갈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갈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주신 기회)

올해는 가을을 더 만끽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변화인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과 그 전년도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금과 같은 기회인데 늘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아니고 자연의 시계가 잘못되어서도 아니었다. 전적으로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길을 지나다니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지만 다음 주에는 걱정하고 단풍을 즐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지 정작 시간을 내고 기회를 누리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추운 기온과 세찬 비로 인하여 나무의 잎들이 전부 떨어져 버렸다. 결국 올해에도 친구들이 보내주는 여러 지역의 가을 사진을 보며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었다.

그것이 가을뿐일까? 내가 지나치는 좋은 기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행복의 시간들, 깨달음의 시간들, 감동의 시간들, 사랑의 시간들... 모두가 내 주위에 오고 가지만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기회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또 다른 은혜로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마음으로 한 순간 순간을 맡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감동과 찬양의 시간에 주시는 기쁨,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누라고 하시는 사랑이 그런 것 아닌가? 이러한 것은 또 다시 혹은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레코드판의 음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가을은 놓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6절) 라고 하신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다. 그 때에 결코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을 하게 된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간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많이 혼란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11월모임

추수 감사주일	11월 20일(주)	예배 시
추수 감사절	11월 26일(목)	
대림절 시작(Advent)	11월 29일(주)	

5.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9.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